

2026 CDMO 산업 동향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의 핵심,
CDMO의 리스크와 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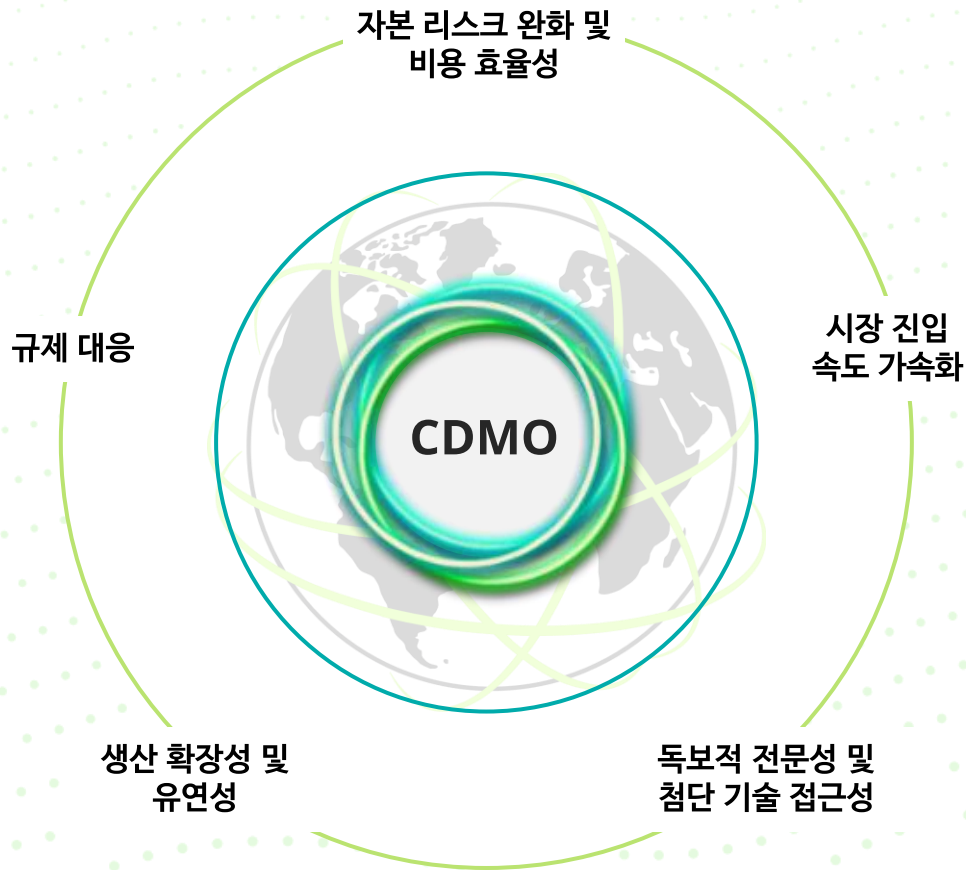
Topics

01	CDMO 사업 모델	3
02	CDMO 산업 전략	6
03	CDMO 산업 주요 리스크	13
04	주요 재무 보고 이슈	20
05	주요 CDMO 기업	22
06	산업 트렌드	25
07	CDMO와 지속가능성	28
08	전망	32
09	Contacts	36

01

CDMO 사업 모델

CDMO의 핵심 가치제안



개념 정의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은 제약·바이오 기업(전통 제약사, 바이오텍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개발부터 생산, 제형, 포장, 분석 시험(analytical testing)**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가치

CDMO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하여금 신약 개발 지원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유연하게 생산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까다로운 **규제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들은 CDMO 아웃소싱을 통해 오늘날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필수 차별화 요소인 **▲속도 ▲전문성 ▲비용 효율성 ▲유연한 적응력**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성공 요인

최근 CDMO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며 마주하는 경제적·기술적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제약사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위해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고,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며, 고도화된 전문 지식과 혁신 기술에 즉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선택한다. 이러한 전략적 방식은 막대한 자본 지출을 통제 가능한 운영 비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의약품 개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Source: [The Core Value Proposition](#)

CDMO 비즈니스 모델: 신약 공정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CDMO의 가치사슬은 초기 신약 개발 지원 단계부터 대규모 상업용 생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약사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전 주기 서비스 모델이다.

개발 단계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기반 기술 및 공정 설계에 집중한다. 의약품의 핵심 성분인 원료의약품(API) 제조를 위한 **공정 개발**, 완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형 개발 서비스, 제품의 품질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법 개발 등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더해 전임상 연구 및 초기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생산 단계

CDMO의 핵심은 엄격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규격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저분자 화합물, 바이오 의약품, 고활성 원료의약품(HPAPI) 등 다양한 API 생산을 비롯하여, 무균 주사제와 같은 완제의약품 제조를 모두 포괄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규제 준수를 보장한다.



포장&물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의약품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이다. **충전·포장(fill-finish) 서비스**, 2차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 과정에 포함된다. 또한, 공급망을 따라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제도를 실행한다. 의약품이 전 세계 환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고도화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02

CDMO 산업 전략

CDMO 산업의 진화



합성의약품

~1990년대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심의 전통적인 합성 의약품 생산기

제약사들이 생산 수요 증가와 비용 효율화 필요성에 따라 일부 원료의약품(API) 공정을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으며, 초기 형태의 전문 CMO/CDMO 기반이 형성된 시기



바이오의약품

2000년대 ~ 2010년대 중반

단일클론항체(mAb) 및 항체 치료제 중심의 고성장기

복잡한 세포 배양 및 정제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적 개념의 대형 바이오 CDMO들이 성장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아웃소싱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



차세대·융복합 의약품

2010년대 후반 ~ 2020년대 초반

항체-약물 접합체(ADC), 펩타이드 등 고난도 기술의 확장기

CDMO 업계가 ADC 및 펩타이드 생산 역량을 고도화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고, 복잡한 공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가파른 시장 성장 견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2020년대 ~ 현재

맞춤형·정밀 의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기

환자 맞춤형 의료 및 CAR-T를 포함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상업화가 본격화되면서, CDMO의 위상이 단순한 생산 대행에서 제약사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진화

주요 트렌드와 산업 영향

주요 트렌드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추월**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전통적인 합성의약품 부문을 넘어서는 가파른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CDMO 산업
M&A 증가⁽¹⁾**

최근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165억 달러 규모로 카탈란트(Catalent)를 인수한 사례는 CDMO 시장 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며, 이는 향후 경쟁 구도를 재편할 전망이다.

Source: [Novo Holdings Completes Acquisition of Catalent](#)



**약가 및 수익성
양극화**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며,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복잡성과 높은 수요로 수익성이 확대되는 반면, 합성의약품은 마진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 영향



**전략적 포트폴리오
전환**

가속화되는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일클론항체 등 수요가 높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역량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있다.



**M&A 준비 및
가치평가**

규모의 경제 확보 또는 고도화된 전문 기술 내재화를 주요 목적으로 잠재적 인수합병 타겟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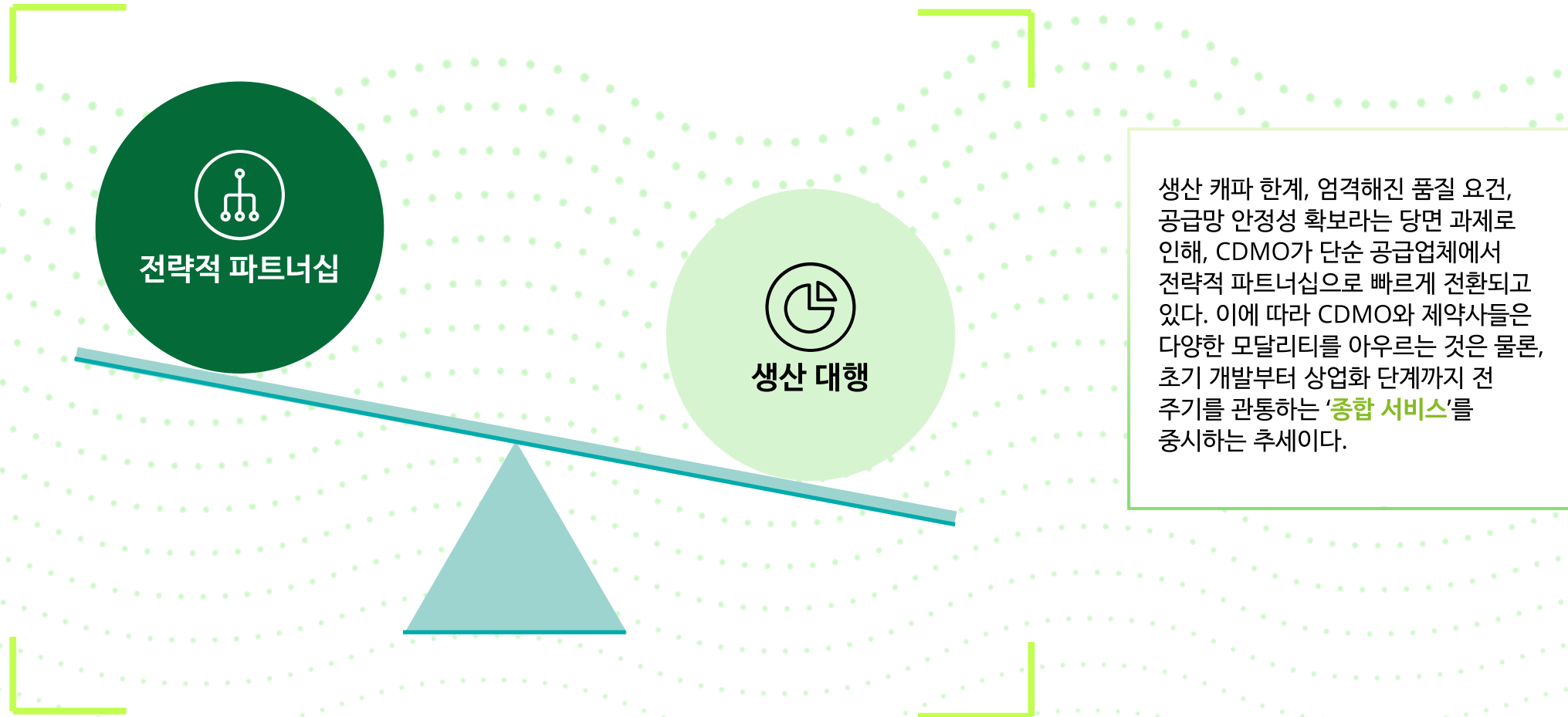


**서비스 포트폴리오
최적화**

고마진 서비스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업 전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¹⁾ CDMO 산업 내 M&A 증가는 시장이 파편화된 상황 속에서 △위탁생산(아웃소싱) 수요의 가속화 △고성장 모달리티(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를 위한 전문 기술력의 필요성 △막대한 자본 니즈 △규제 장벽의 복잡성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필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CDMO의 진화: '생산 대행'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생산 캐파 한계, 엄격해진 품질 요건,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당면 과제로 인해, CDMO가 단순 공급업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CDMO와 제약사들은 다양한 모달리티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초기 개발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전 주기를 관통하는 '종합 서비스'를 중시하는 추세이다.

경쟁 구도 및 시장 통합

경쟁 구도

글로벌 선도 기업의 시장 지배력

론자(Lonza), 카탈란트(Catalent), 써모피셔(Thermo Fisher) 등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압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며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 업체에서 통합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전환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에 대한 고객사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CDMO 기업들이 특정 분야만 다루던 '전문 서비스 기업'에서 **종합 '원스톱 숍(One-stop-shop)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다.

아태 지역 신형 강자의 부상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과거 서구권 CDMO 기업들이 독점해 온 글로벌 시장 구도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CDMO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 ▶ '규모의 경제'와 '통합'을 중심으로 시장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 ▶ 격화되는 경쟁 압박을 배경으로 전략적 **인수** 및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 ▶ 그 결과, 전 주기(end-to-end) 서비스 역량을 갖춘 대형 기업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강해지고 있다. Top3 CDMO 기업이 Top10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Source: [Top 10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2025](#)

시장 통합

메가 딜의 등장

노보 홀딩스가 165억 달러 규모로 카탈란트를 인수한 사례처럼, 시장 내 **대규모 합병** 트렌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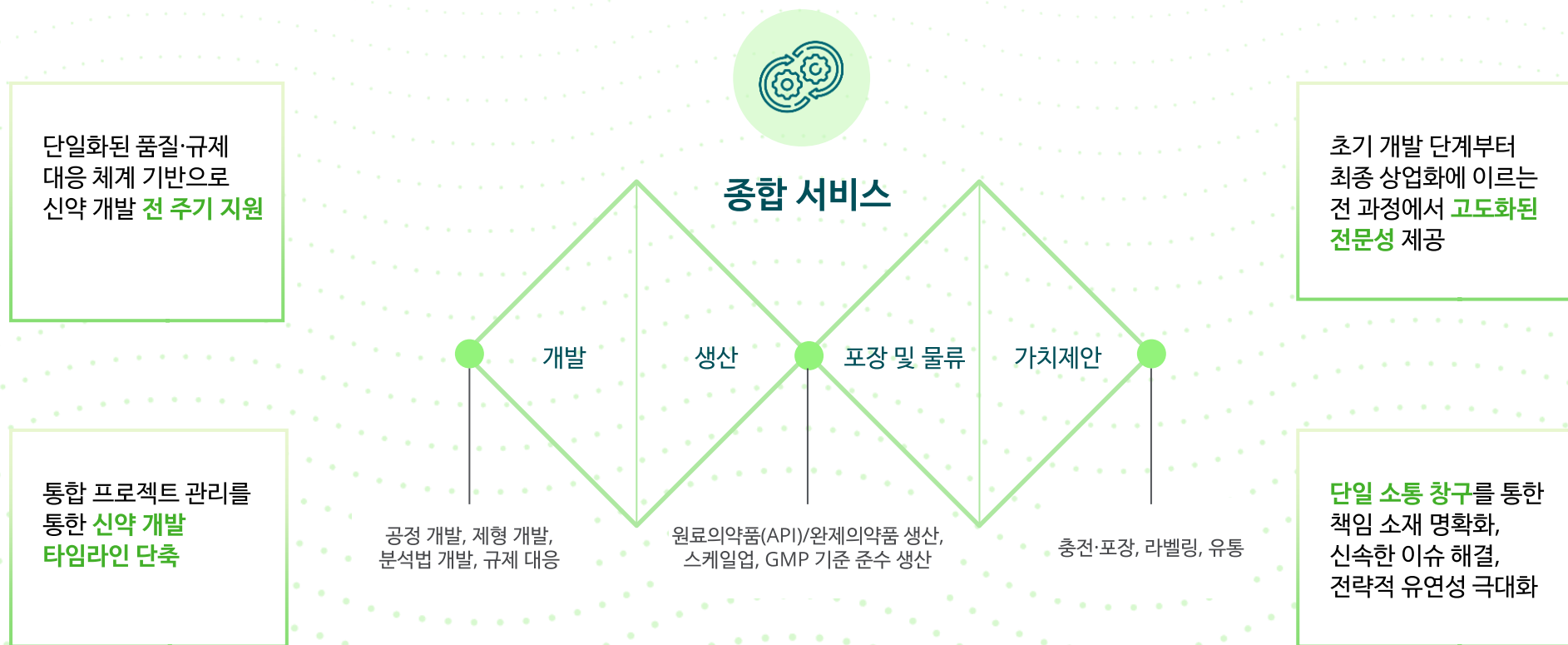
인수 주체로 나선 빅파마

대형 제약사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생산 공정** 및 타임라인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CDMO 역량(생산 시설)을 적극 인수 중이다.

사모펀드(PE)의 주도적 역할

사모펀드들이 소형·전문 CDMO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 및 합병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큰 규모의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부터 물류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종합 원스톱숍(one-stop-shop) 기업의 부상



다양한 모달리티를 아우르며 개발·생산·포장 공정을 하나의 원활한 서비스로 통합한 '원스톱숍' 모델은 고객사에게 운영 효율성, 물류 간소화, 단일 소통 창구의 가치를 제공하며 CDMO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CDMO 기업의 주요 포지셔닝 전략



틈새시장 공략

HPAPI(고활성 원료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집중을 통한 **높은 마진** 확보 및 **경쟁 압박 완화**



종합 서비스 제공

개발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주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형 계약** 확보 및 고객사 **락인(Lock-in, 묶어두기)** 효과 극대화



첨단기술 선도

연속 제조 공정, AI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극대화** 및 **프리미엄 가격** 책정 기반 마련

03

CDMO 산업 주요 리스크

CDMO 산업의 주요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

CDMO 업계는 **생산 설비 제약**이 상당하고 고객 편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수익성과 전략적 유연성이 약화되고 있다.

Source: [What to Expect in Pharma Manufacturing in 2026: Industry Leaders Share Their Predictions - PharmaSource](#)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엄격한 품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GMP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규제 경고 서한** 발행 빈도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Source: [FDA Warning Letters 2025: Trends, violations, and how to avoid them](#)



규제 리스크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의 감시·감독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 인텔리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Source: [2026 CDMO Forecast The 7 Shifts Sponsors Need To Prepare For](#)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무역 긴장 고조 및 관세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사업 연속성 보장과 차질 최소화를 위한 복잡한 **공급망 구조개편**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Source: [How The New Tariffs Are Impacting The CDMO Industry | Agno Pharmaceuticals](#)



운영 리스크

생산 차질 및 오염 리스크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 인재 확보 등 산업 공통 과제를 해결해 운영 효율을 유지해야 한다.



재무 리스크

대규모 **자본 지출(CAPEX)** 투자에 따른 장기적 재무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다. 투자 시점부터 가동까지의 긴 타임라인으로 인해 재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속 장기 수익성 확보가 CDMO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심층 분석: 비즈니스 & 재무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

CDMO 기업들은 운영 안정성과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비즈니스 리스크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CDMO 업계의 구조적 특성 및 경쟁 역학에서 비롯되는 산업 고유의 리스크이다.

- ➔ **생산 캐파 제약:** 바이오의약품 분야, 특히 충전·포장 공정(Fill-Finish)의 캐파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제약이 발생하고 고객사의 핵심 의약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 **소수 고객사 편중:** 소수의 핵심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업계의 고질적 문제이다. 상위 10대 고객사가 CDMO 총매출의 40~50%를 차지해 구조적 취약성으로 작용하며, 대형 고객사가 단 하나만 이탈하더라도 전체 재무 성과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 ➔ **단가 인하 압박:** 성숙기에 도달한 합성의약품 시장에서는 CDMO 서비스가 점차 평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치열한 가격 경쟁 및 마진 압박 심화로 인해, 가치 기반 서비스가 아닌 공격적인 원가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재무 리스크

CDMO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리스크로, 주로 운영상의 문제나 M&A 등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기인한다.

- 1. 수익성 압박:** 서비스 유형별 명확한 수익성 차이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합성의약품** 서비스의 매출총이익률은 보통 **20~30%** 수준인 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바이오의약품** 서비스의 경우 **30~40%**의 높은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로의 서비스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 운전 자본 관리 :** 장기 계약 및 마일스톤 기반인 CDMO 계약 특성상 **운전 자본** 관리 부담이 크다. 서비스 제공 시점과 청구, 대금 회수 사이에 긴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기 계약 체결로 수익 인식 기준(revenue recognition, 언제 매출로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회계 원칙)이 복잡해져, 정확한 재무 보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재무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 3. 부채 특약:** 업계 내 활발한 M&A 붐 이후, 인수 자금 관련 부채로 인해 많은 CDMO 기업들의 **레버리지(부채 비율)**가 급증한 상황이다. 부채가 증가하면 흔히 대주단이 부과하는 엄격한 재무적 특약 사항 준수 부담도 증가한다. 순부채 대 상각전영업이익 비율(Net Debt-to-EBITDA)이나 순부채 대 자본 비율(Net Debt-to-Equity) 등 특약 조건 달성 실패 시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패널티 또는 경영권 상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심층 분석: 컴플라이언스 & 지정학적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

CDMO 기업을 향한 규제 환경이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지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 **감사·감독 강화:** FDA·EMA 등 글로벌 규제 기관들의 감독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고 서한 발행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화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 **데이터 무결성:** 최근 규제 기관 조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핵심 항목이다. 데이터 무결성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적발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영역이다. 이에 따라 모든 제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 ➔ **새로운 규제 기준:** 연속 제조 공정에 관한 ICH Q13 및 무균의약품 제조 지침인 EU GMP Annex 1 등 신규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시설 및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당 수준의 운영 방식 변화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규제 위반 방지를 위한 선제적 체질 개선이 필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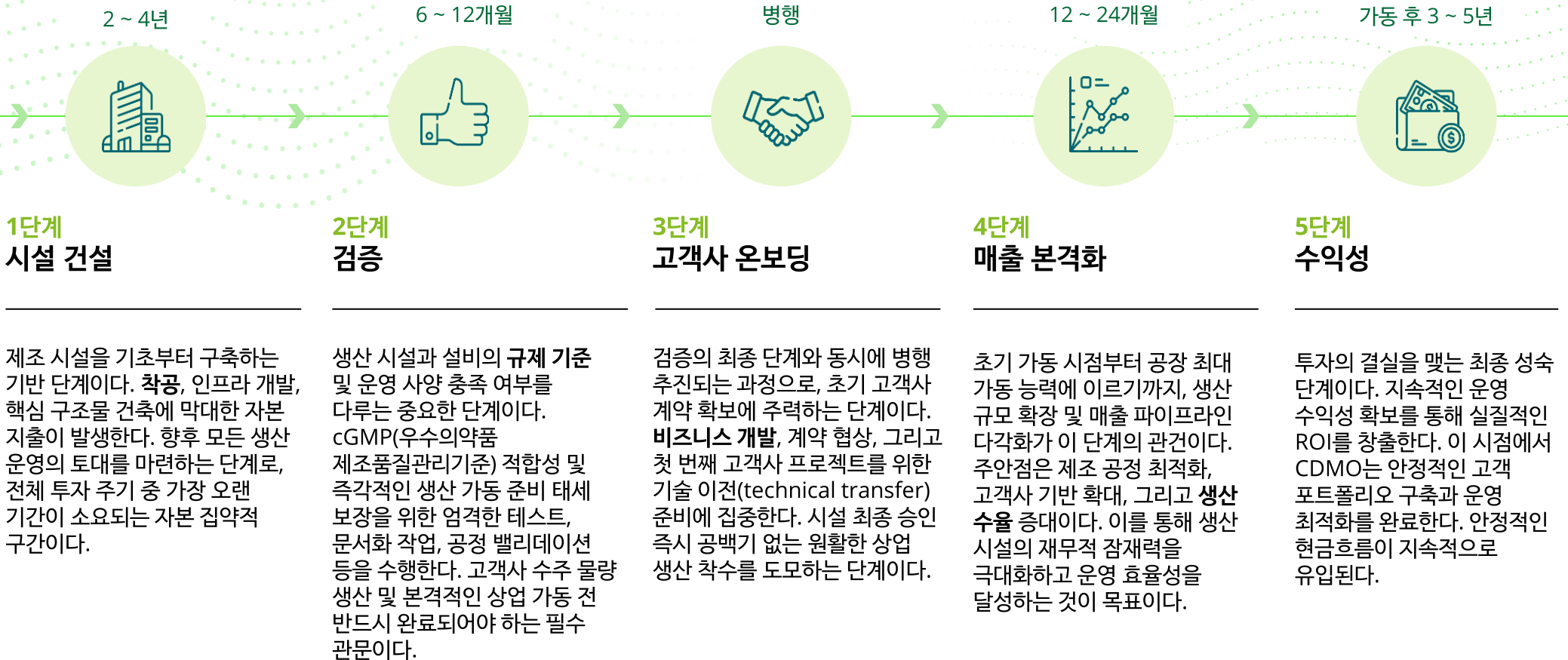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CDMO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과 운영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복잡한 글로벌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전략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1. **미·중 갈등:** 중국 바이오 제조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공급망 경제성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파트너사에 의존해 온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킬 수 있으며, 원부자재 조달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2. **미국 온쇼어링(onsourcing) 트렌드:**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등 규제 입법 움직임에 힘입어 미 본토 내 생산 트렌드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 기회 및 미국 내수 지형을 지속적으로 재편할 전망이다.
Source: [Impacts of the BIOSECURE Act on the Global BioTech Industry](#)
3. **니어쇼어링(nearshoring) 트렌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인접국으로 옮기는 니어쇼어링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특정 지역(특히 아시아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제조 및 조달 거점을 최종 소비국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포함한다.
4. **공급망 안보:** 지정학적 위기로 공급망 안보 강화의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원부자재 **듀얼 소싱(dual-sourcing)**, **거점 지역내 생산 역량** 구축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다변화되고 회복 탄력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장기적 성공과 사업 연속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핵심 과제이다.

CDMO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 착공에서 수익 창출까지

CDMO 산업에서 일어나는 투자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일은 CDMO 사업 성공에 중요하다. 투자 과정은 초기 투자부터 실제 수익 성과 달성까지 수년에 걸친 정형화된 타임라인에 따라 전개된다. 다음의 도식은 초기 착공부터 시작해 투자수익률(ROI) 달성에 이르는 CDMO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5단계를 시각화하여 향후 타임라인 예측 및 전략적 기획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생산 시설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핵심 마일스톤을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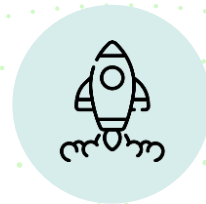
고객 온보딩부터 매출 창출까지: 램프업(ramp-Up) 기간

다음은 생산 시설 승인부터 실제 매출 창출에 이르는 핵심적인 3단계이다. 이러한 램프업 구간을 명확히 이해해야 향후 타임라인을 예측하고 수익성을 전망할 수 있다. 다음은 초기 고객 확보 단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성과 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고객 온보딩

생산 시설의 최종 승인 및 가동 준비 완료 즉시 **고객 온보딩** 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프로젝트에서 맞춰야 하는 사양과 생산 조건 설정, 규제 대응 방향성 조율, 고객사 공정과 당사 시스템 간의 통합을 수행하는 핵심 초기 단계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보딩을 통해 향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론칭을 도모하고 가동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프로젝트 램프업

초도 유입 고객사 프로젝트가 램프업(Ramp-Up) 구간에서 시작된다. 이 구간은 통상 12~24개월 소요되며, 프로젝트 초기 단계 및 공정 개발 단계에서 본격적인 상업 생산 규모로의 전환이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상업용 제조 완비를 위한 집약적인 기술 이전, 생산 규모 확대, 밸리데이션 런(validation run, 공정 검증)을 수행한다.



상업용 제품 생산

최종 단계는 매출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상업용 생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높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해야 안정적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풀 가동에 준하는 운영을 통해 최적의 운영 효율성 달성, 고정비 절감을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해당 투자의 수익성 및 장기적 재무 성과를 견인한다.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미국 FDA 프리체크(PreCheck)

미국에서 2026년 2월 1일 출범한 **FDA PreCheck 프로그램**이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본 이니셔티브는 시설 건설부터 상업용 제품 생산 가동에 이르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수익성과 시장 진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으며,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FDA의 PreCheck 프로그램은 제조 시설의 신설 및 증설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차적 목표는 효율적인 규제를 만들어 행정적 장벽을 완화하고, 제약 및 바이오테크 산업 내 핵심 생산 기지의 가동 준비 태세를 앞당기는 것이다.

Source: [FDA Opens PreCheck Program for Domestic Manufacturing - PharmaSource](#)

01 빠른 승인 절차

이 프로그램의 핵심 도입 효과는 승인 타임라인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초기 단계부터의 소통과 동시 검토 프로세스를 병행함으로써, 시설 적격성 평가부터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 획득까지의 과정을 효율화한다. 이러한 선제적인 방식은 승인 지연을 최소화하고 밸리데이션 단계 전반을 앞당김으로써, 기존 규제 대비 더 빠르게 제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02 빠른 매출 발생 시점

PreCheck는 승인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상업용 생산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가속화는 CDMO 기업의 조기 매출 창출을 가능케 하며, 이는 투자 회수 기간을 앞당긴다. 결과적으로 자본 회수 기간 단축 및 급변하는 시장 내 강력한 경쟁 우위 확보로 이어져, 투자의 매력도와 재무적 타당성을 높인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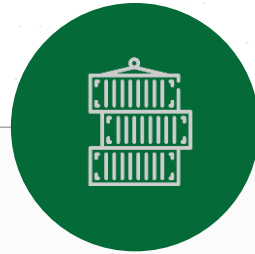
주요 재무 보고 이슈

주요 재무 보고 이슈



수익 인식은

그 복잡성과 왜곡 표시 리스크로 인해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주요 영역이다. CDMO 기업은 고객 맞춤형 제조 및 서비스 계약을 포함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흔히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선금금, 예약 수수료,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지급, 그리고 다양한 수행의무를 포함한다. 경영진은 이러한 계약 내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파악하고, 거래가격을 적절히 배분하며, 수익 인식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에 경영진의 중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M&A는

재무적 영향이 상당하며, 자산, 부채, 영업권의 인식과 가치평가가 복잡하다. 경영진은 사업결합 원가 배분(PPA) 결정,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우발부채의 식별, 공정가치 결정 등 여러 핵심 영역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처럼 평가 과정에 상당한 수준의 유의적인 판단과 복잡한 추정치가 개입되는 특성상, 인수합병 관련 재무 보고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될 소지가 있다.



CDMO 기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CDMO 기업은 현지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는 크로스보더 거래, 조달 금융 구조, 이전가격 설정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주요 위험 영역으로는 내부거래 가격 책정, 지식재산권(IP) 소유권, 크로스보더 공급망 구조 등이 있다. 불확실한 세무쟁점에 대한 총당부채 계상에는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 세법 규정과 과거 조세불복 선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부채, 가산세 및 납부지연이자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총당부채는 국가별 세법의 차이와 과세당국의 해석 변화로 인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복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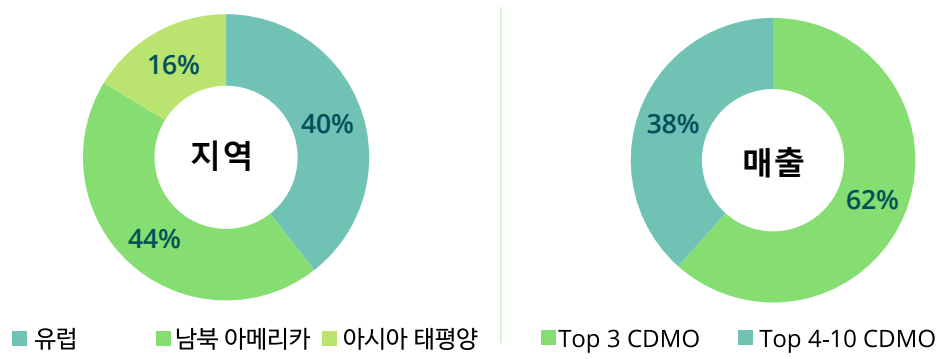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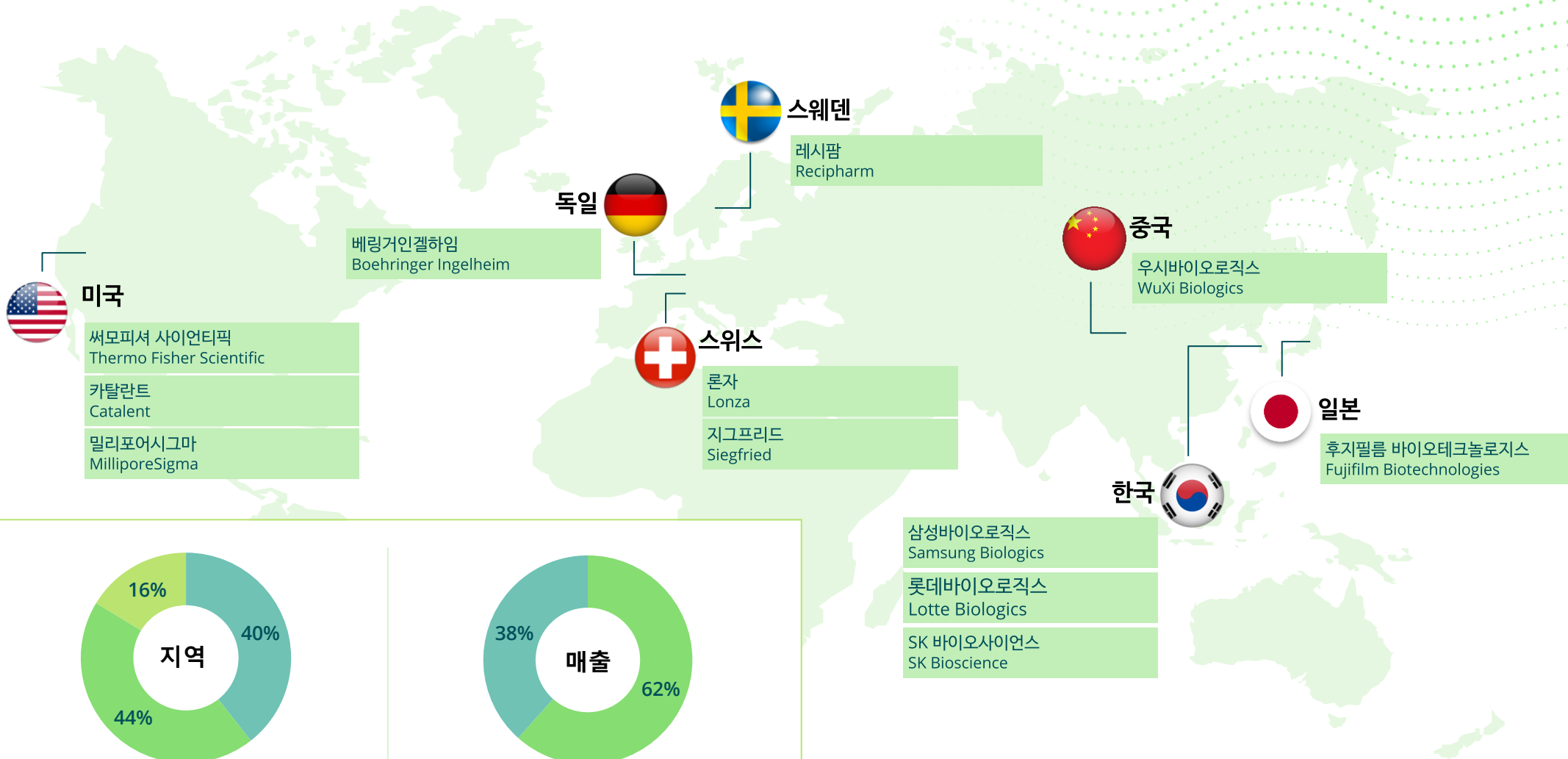
영업권 손상평가는

보고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추정과 판단이 요구되므로 회계 복잡성이 높다. 특히 해당 추정치는 매출액 성장률, EBITDA 마진율, 할인율 등 주요 가정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향후 사업 전망과 시장 상황 및 전반적인 경기 예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05

주요 CDMO 기업

주요 글로벌 CDMO 기업



Source: Top 10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2025

주요 플레이어 및 시장 포지셔닝

CDMO 시장은 저마다 뚜렷한 전략적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포지셔닝을 이해해야 CDMO 시장의 경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카테고리 분류된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통합 엔드투엔드(end-to-end) 리더**, 특정 시장의 니즈나 지역에 특화된 **다각화된 플레이어**, 그리고 고성장 영역 전문인 **바이오의약품 강자**이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업계 내 경쟁 역학과 전략적 기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통합 엔드투엔드 리더



론자(LONZA)

전 주기에 걸친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선도 기업



서모피셔(THERMO FISHER)

전체 가치사슬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



카탈란트(CATALENT)

최근 노보 홀딩스(Novo Holdings)에 인수되며 시장 내 입지 강화

2024년 매출액: \$200억 달러
(Core) EBITDA 마진율(%): 약 25-30%



전략

고객사에게 원스톱 슝 형태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

다각화된 플레이어



지그프리드(SIEGFRIED)

다각화된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핵심 기업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제약사 소유의 CDMO로, 독보적인 내부 전문성 보유



후지필름 바이오테크놀로지 (FUJIFILM BIOTECHNOLOGIES)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및 솔루션 분야의 선두 주자



레시팜(RECIPHARM)

유럽 지역 내 강점을 바탕으로, 합성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있는 위탁생산에 집중



밀리포어시그마/독일 머크 (MILLIPORESIGMA/MERCK KGaA)

제약, 바이오텍 및 연구 부문 전반에 걸친 위탁생산 서비스 제공

2024년 매출액: \$60억 달러
(Core) EBITDA 마진율(%): 약 20-25%



전략

특정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거나 특정 권역 시장을 공략

바이오의약품 강자



삼성바이오로직스(SAMSUNG BIOLOGICS)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생산능력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 선점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고성장세인 바이오의약품 세그먼트에 주로 집중

2024년 매출액: \$60억 달러
(Core) EBITDA 마진율(%): 약 30-40%



전략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전문

06

산업 트렌드

주요 산업 트렌드



연속 제조 공정

국제약품규제조화위원회 ICH Q13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원료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연속 제조 공정 도입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 원료를 한 번에 투입해 정해진 공정을 거쳐 하나의 생산 단위(batch)를 완성하는 전통적인 배치 생산에 비해, 이 첨단 기술은 **생산 효율성이 높고 설비 면적 축소가 가능하다**. 이는 차세대 제약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환점이며, 전반적인 공정 제어 역량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킨다.

Source: Continuous manufacturing of drug substances and drug products Q13



AI·머신러닝 도입

주로 **공정 최적화**와 예측 분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 기술은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CDMO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성공률을 개선하며, 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고 있다.



전략적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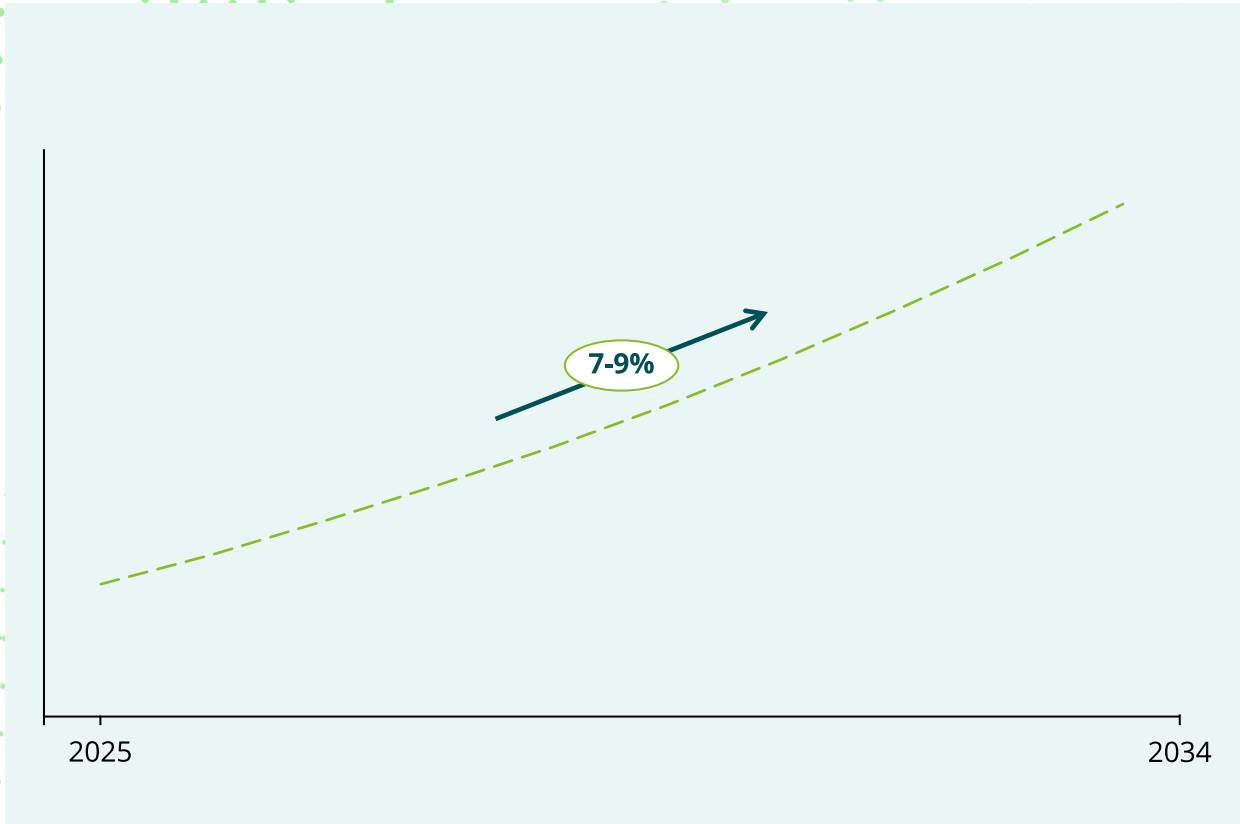
노보 홀딩스의 카탈란트 인수, 론자의 바카빌(Vacaville) 생산 시설 인수와 같은 기념비적인 대형 전략적 인수합병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플레이어들이 전문 역량을 내재화하고 **핵심 생산 캐파를 선점함**에 따라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와 '통합적인 공급망 구축'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종합 원스톱숍 모델

고객사들은 여러 협력업체를 두기보다 하나의 풀 패키지 기업으로 거래선을 통합하는 추세이며, 특정 영역만 다루는 니치(Niche) 플레이어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숍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 단순화,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 매끄러운 엔드투엔드 서비스에 대한 제약사들의 니즈에서 비롯되었다. 전 주기에 걸친 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O 기업들이 향후 **장기 파트너십** 구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CDMO 시장 성장성



CDMO 시장 성장 추이

- > 2025년 시장 규모 추정: \$2,200억 달러
- > 2034년 시장 규모 전망: \$4,200억 달러
- > 연평균 성장률(CAGR): 7~9%
- > 성장 동인: 글로벌 제약 시장 자체의 성장 및 제약사들의 CDMO 위탁생산 비중 확대

Source: [PharmaSource](#)

권역별 동향

- > 북미 시장이 시장 점유율 1위
- > 아시아·태평양 권역이 가장 빠른 성장세

07

CDMO와 지속가능성

CDMO 제조 트렌드 2026

전략적 핵심 과제, '지속가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더 이상 부차적인 이슈가 아니다. ESG는 **CDMO 운영의 관건이자, 파트너사 선정과 장기적 가치 창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성이 CDMO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필수 요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시장 동인 및 트렌드



핵심 동인

글로벌 규제 요건의 강화와 주요 투자자들의 엄격한 ESG 요구로 인해, CDMO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상당한 비용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주요 트렌드

녹색화학(Green Chemistry) 도입, 생산 설비의 탄소 배출 저감, 자원 관리 및 공정 최적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AI, 디지털 트윈) 활용 등이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과제

첨단바이오의약품(ATMP) 분야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높은 의존도, 콜드체인 물류의 복잡성 등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기업 대응 과제 및 시사점



위탁사를 위한 핵심 조치

시장 전반에서 ESG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CDMO의 성과가 위탁사의 'Scope 3(기타 간접 배출)' 배출량과 직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CDMO 기업들은 탄소 배출, 용수 사용,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ESG 실사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성 검증

마케팅을 위한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규제 준수와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엄격한 지속가능성 실사**가 진행된다.



사업 영위의 필수 자격

현재 CDMO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은 **규제 준수, 투자자 신뢰 확보, 나아가 운영 탄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근간이다.

지속가능성 재무적 가치



에너지 소비 감축은 운영비용(OPEX) 절감으로 직결된다. **1kWh의 에너지를 아낄 때마다 수익성이 개선**되므로,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로 핵심적인 재무 전략이다.



용매 폐기물은 구매 비용과 고가의 폐기 처리 비용이라는 이중 부담을 발생시킨다. 공정 최적화나 재활용을 통해 이를 줄이면 매출원가와 전반적인 비용이 낮아져 투자수익률(ROI)이 극대화된다.



주사용수(WFI) 정제 프로세스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용수 비용의 본질은 에너지 비용이다. **고순도 용수 사용량을 줄이면 에너지 비용이 즉각적으로 감축**되며, 이는 비용 통제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효율성은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고리이다. 기업이 에너지, 원자재, 용수의 소비를 체계적으로 줄이면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환경 발자국(Footprint) 축소와 재무 성과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향후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CDMO가 곧 가장 지속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이는 시장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경쟁 우위 요소이다.

기술 심층 분석

녹색화학 및 공정 최적화



지속가능한 지표 및 공정 설계

단순히 수율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 질량 강도(PMI) 및 E-Factor(대표적 환경 효율성 지표) 같은 포괄적인 지표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 재설계를 유도하여 원자 경제성(Atom Economy)을 극대화한다. 즉, 투입된 반응물 내 대부분의 원자가 최종 제품에 그대로 남도록 공정을 설계함으로써 시작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위한 고도화된 촉매 기술

최신 촉매 기술은 반응 과정에서 당량으로 투입되어 완전히 소비되는 기존의 화학양론적 시약 대신, 소량으로도 작동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첨단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E-Factor를 획기적으로 낮춘다. 이 방식을 통해 후속 정제 공정과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친환경 공정 화학** 및 운영 효율성의 근간이 된다.



친환경 용매 관리

용매는 전체 원자재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핵심 전략은 DCM과 같은 유해 용매를 안전한 바이오 기반 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장 내에 증류 등 자체 **용매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완성하면, PMI를 낮추는 동시에 운영 비용까지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연속 제조 공정 vs 배치 공정

연속 제조 공정은 전통적인 배치 공정 대비 확실한 강점이 있다. 설비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량 반응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탁월한 공정 제어로 품질 일관성을 높인다. 또한, 이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용매 재활용 효율을 높여, 공장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화학 생산 전반의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기술 심층 분석

지속가능성 동력,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 다음은 핵심 디지털 혁신 기술이 어떻게 제조 공정을 재편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보존하며,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지 보여준다.

디지털 트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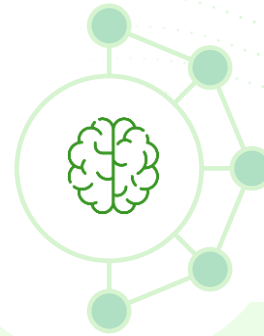
실제 공정을 가상 세계에 복제한 **가상 공정 모델** 기반의 예측 모델링을 통해,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공정 변수를 최적화함으로써, 배치 생산 실패 및 원자재 손실을 방지하고 단 한 번에 성공적으로 생산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이러한 선제적 품질 보증(QA) 체계는 고가의 원료의약품(API)과 원부자재,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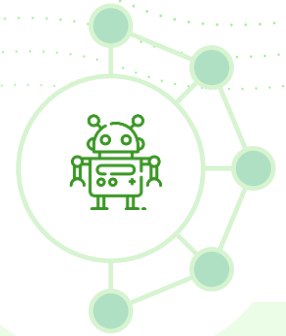
공정 모델링과 분석 기술을 통합하여 제조 단계부터 품질을 내재 설계한다. 이는 품질이 보장되는 견고한 **'디자인 스페이스(Design Space)'**를 설정함으로써, 시작 단계부터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폐기물 배출이 적은 고효율 공정을 구축한다.

AI 기반 공정 최적화



AI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공정을 제어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이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자동화 및 로봇틱스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며, 우수한 에너지 효율성으로 공장을 가동한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일관되고 최적화된 **'라이트아웃(lights-out)'**, 즉 완전무인자율 공정 체계를 통해 **폐기물 감소와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견인한다.

08 전망

전망: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 내 강력한 트렌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CDMO 시장이 본격적인 고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동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향후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에 중요하다. 다음은 CDMO 산업의 판도를 바꿀 4대 핵심 동력을 분석한다. 이는 새로운 당면 과제를 동반하는 동시에, 준비된 기업에게는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에는 대규모 상업 생산부터 초세분화된 니치 분야 제조 역량을 아우르며, 위탁생산의 차세대 패러다임을 정의할 전망이다.

파이프라인 상업화



임상 단계에 있던 신약 후보물질들이 대거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다수의 신약 승인이 이뤄졌다. 당해 연도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가 승인한 46개 신약 중 11개(24%)가 신속 승인을 통과했다. 이러한 신속 승인 트렌드는 대규모 상업 생산 캐파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 체계와 복잡한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갖춘 CDMO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Source: [Advancing Health Through Innovation: New Drug Therapy Approval 2025](#)

바이오시밀러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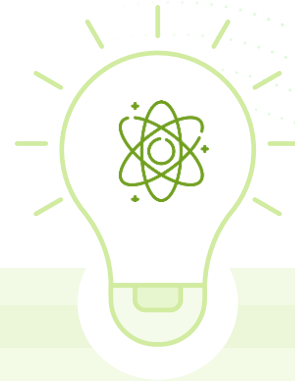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CAGR) 17.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익성 높은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노하우와 원가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생산 캐파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Source: [Biosimilars Market Size to Rise at 17.6% CAGR till 2035](#)

※ 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유효 성분 및 효능을 가진 생물의약품이나, 바이오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리지널과 완전히 동일한 카피는 불가능

개인맞춤형 의료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급격한 성장은 기존의 제조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치료제들은 대량 생산이 아닌 특화된 소량 생산(Small-batch)과 고도로 통제된 생산 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최첨단 맞춤형 정밀 의료 모달리티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CDMO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GLP-1 비만·당뇨 치료제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인 GLP-1 제제가 전례 없는 글로벌 흥행을 기록함에 따라, '무균주사제' 생산 캐파에 대한 대대적인 니즈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생산 시설 확충과 전문 역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Source: [Key CDMO Market Trends for 2025 and Outlook for 2026](#)

전망: 첨단기술·M&A·규제

현재 CDMO 산업은 기술 발전과 전략적 시장 재편이 맞물리며 거대한 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장 내 주요 변화로 인해 기업의 운영 모델, 경쟁 구도, 나아가 규제 프레임워크까지 완전히 재정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제조 패러다임의 전환 ② AI 도입 ③ 지속적인 M&A 기조 ④ 규제 환경의 진화 등이 향후 CDMO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4대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전략 기획과 시장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

연속 제조 공정



기존의 전통적인 배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연속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신설되는 생산 캐파의 상당 부분에 연속 제조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생산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운영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AI



인공지능은 CDMO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앞으로 AI가 공정 설계,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품질 관리(QC)의 기본 사양으로 도입될 것이며, 이는 공정 개발 타임라인의 획기적인 단축, 운영 비용 절감, 그리고 제품 품질의 일관성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M&A



대형 메가 딜을 중심으로 한 M&A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형 CDMO 및 제약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핵심 자산과 역량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 구도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규제기관들은 새로운 리스크 요인과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첨단 제조 기술을 관리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 집행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CDMO 산업의 미래 키워드는
'전략적 통합·기술 혁신·규모의 경제'이며,
앞으로는 통합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이호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세무자문 부문

☎ 02 6099 4472
@ hojilee@deloitte.com

안종식 수석위원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88
@ jongsahn@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대표

권지원 Partner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부대표

서정욱 Partner
juseo@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Authors



Fabien Lussu

Deloitte Switzerland

Audit & Assurance Partner

flussu@deloitte.ch

+41 79 578 41 77



Jan Meyer

Deloitte Switzerland

Audit & Assurance Partner

janmeyer@deloitte.ch

+41 79 353 56 38



Ramona Achermann

Deloitte Switzerland

Audit & Assurance Assistant Manager

rachermann@deloitte.ch

+41 58 279 56 80



Gamlet Nalbandyan

Deloitte Switzerland

Audit & Assurance Manager


gnalbandyan@deloitte.ch

+41 58 279 69 81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 앱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AI 시대의 전략과 리스크, 산업별 핵심 이슈를 다룬 **분석 리포트**
- 소비심리지수·자동차 구매의향 등 실물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Deloitte Index**
- 딜로이트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글로벌 행사의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
-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실행 인사이트를 담은 **고객 성공 사례**

 카카오채널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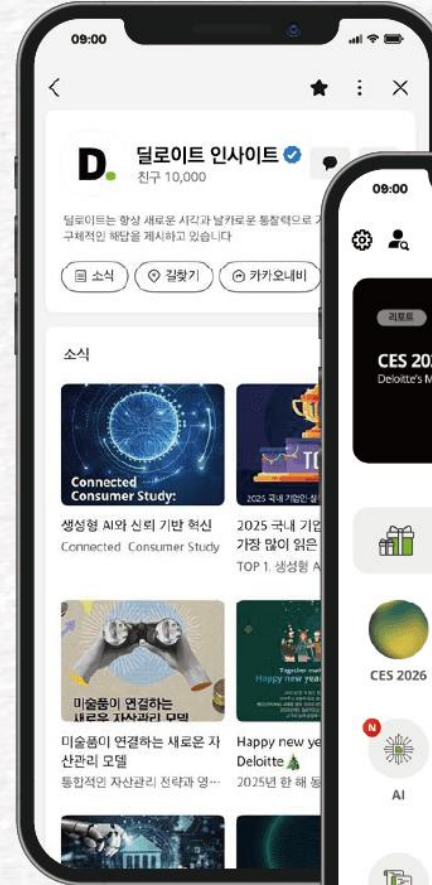


Download on the
 App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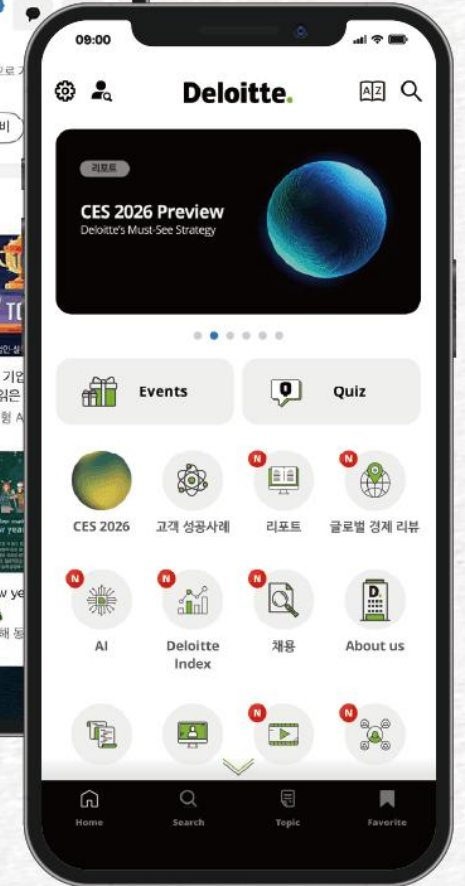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 채널



앱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